

# 로즈스나이퍼스·무등산생태요양병원 금호허리케인·패밀리

# 무등리그 8강 진출

# 자담한방병원 포비스·자연환경 엑터스·GN리버스

##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제7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무등리그' 8강 진출팀이 가려졌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2주 차 경기가 함평야구장에서 치러졌다.

로즈스나이퍼스, 무등산생태요양병원, 금호허리케인, 패밀리에 이어 자담한방병원 포비스, 자연환경, 엑터스, GN리버스가 무등리그 8강을 확정했다.

자담한방병원 포비스는 블랙이글스를 14-3, 4회 콜드 게임승으로 꺾었다. 1회 공격에서 2점을 만든 포비스는 2회 4점 그리고 3회 대거 8점을 뽑아내며 일찍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무등기 강호' 자연환경도 13-3 승리로 정상을 향한 순항에 나섰다. 1회말 피닉스는 2회에도 2점을 보태며 점수 차를 벌였다. 3회 5점을 C추가한 GN리버스는 상대 타선을 완벽하게 봉쇄하면서 9-0의 승리를 만들었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며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가 후원한다. 또 아름다움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재)와 KIA 타이거즈도 지역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 잔치'에 함께 한다.

엑터스는 간발의 차로 광주 폭격기를

11-10으로 따돌리고 8강에 올랐다. 1-2회 각각 4점을 뽑으며 초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엑터스가 1-9로 앞선 4회초 9-9 동점을 허용했다. 그리고 5회초 9-10으로 리드까지 내줬지만 5회말 11-10, 재역전극을 연출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무등기 첫 다국적 팀인 '광주 폭격기'의 정상 도전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마지막 경기는 GN리버스의 완승이었다. 전남대OB 프라이엄을 상대로 1회 2점을 먼저 뽑아내며 분위기를 끌고 온 GN리버스는 2회에도 2점을 보태며 점수 차를 벌였다. 3회 5점을 C추가한 GN리버스는 상대 타선을 완벽하게 봉쇄하면서 9-0의 승리를 만들었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며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가 후원한다. 또 아름다움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재)와 KIA 타이거즈도 지역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 잔치'에 함께 한다.

엑터스는 간발의 차로 광주 폭격기를

◇무등기 2주차 (무등리그 16강전)

▲1경기(4회 콜드승)	
블랙이글스	0 0 2 1 - 3
자담한방병원 포비스	2 4 8 X - 14
△승리투수 : 김상수	
▲2경기(4회 콜드승)	
자연환경	0 4 7 2 - 13
피닉스는못말려	1 0 2 0 - 3
△승리투수 : 남준성	
▲3경기(5회 시간제한 승)	
광주폭격기	0 0 1 8 1 - 10
엑터스	4 4 1 0 2 - 11
△승리투수 : 신성식	
▲4경기(5회 콜드승)	
GN리버스	2 2 0 5 0 - 9
전남대OB 프라이엄	0 0 0 0 0 - 0
△승리투수 : 조준	

▶10일 전남 함평야구장에서 열린 무등토너먼트 광주폭격기와 엑터스야구단 경기. 2회말 엑터스 이경훈이 이재열의 기습번트 때 홈으로 쇄도, 세이프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 헥터마저... 호랑이 일요병 어찌나

(7승 19패 승률 0.368)



매진 징크스 넘은 '호랑이 군단'이 일요일 징크스에 막혔다.

KIA 타이거즈가 1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16차전에서 6-9로 졌다.

전날 연장 11회 타진 버나디나의 끝내기 안타 여운을 잊지 못한 KIA는 3연승에 실패했다. 그러나 올 시즌 삼성과의 전적은 12승 4패로 마무리했다.

KIA는 올 시즌 1위를 달리며 유일하게 6할(0.611) 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매진'과 '일요일'에 약한 모습이였다.

삼성과의 주말 2연전에 앞서 KIA의 매진경기 승률은 2승 7패로 0.222에 그쳤다. 일요일로는 일요일에 7승 11패(0.389)로 가장 성적이 좋지 못했다.

## 1회에만 3실점 부진

## KIA, 삼성에 6-9 패

## 2위 두산과 3.5게임차

지난 9일 2만 500석을 가득 채우며 시즌 10번째 매진을 기록한 KIA는 연장 11회 승부 끝에 6-5로 이기며 매진 징크스를 깬다.

마무리 김세현의 불륜 세이브가 나오면서 9회 4-5로 역전을 허용한 KIA는 삼성 1루수 이승엽의 실책으로 5-5 동점을 만들며 연장에 들어갔다. 그리고 11회말 1사 1루에서 나온 버나디나의 끝내기 3루타로 승리를 장식했다.

하지만 무기력한 일요일은 계속됐다.

민었던 헥터가 이날 경기 초구를 강타당하면서 박해민에게 선두타자 홈런을 내주는 등 1회에만 3실점을 했다. 헥터가 이후 2-3-4회를 삼자범퇴로 막는 사이 KIA가 최형우의 솔로포와 상대 연속 실책 등으로

3-3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5회초 1사에서 헥터가 연속안타로 위기를 자초했다. 여기에 허리가 좋지 않은 김선빈을 대신해 유격수로 선발 출장한 최원준의 포구 실책이 나오면서 3-6이 됐다. 헥터는 6회초에는 권정웅과 구자욱에게도 홈런을 맞으며 5.1이닝 12피안타(3피홈런) 1볼넷 4탈삼진 9실점(7자책)으로 일찍 마운드를 내려갔다.

KIA는 4-9로 뒤진 7회말 김호령과 김주찬의 연속 2루타를 앞세워 2점을 추격하는 데 성공했고, 9회 2사 만루까지 채우면서 마지막 반격 기회를 잡았지만 전날 같은 짜릿한 끝내기는 없었다.

지난 8일 한화전에서 두 번째 만루홈런을 터뜨렸던 안치홍이 2사 만루에서 타석에 섰다. 이어 1회에서 좌측으로 파울 홈런을 날리며 경기장을 술렁이게 했지만, 3구째 승부에서 3루수 플라이가 나오면서 경기는 6-9로 끝났다. KIA의 일요일 승률은 7승 19패, 0.368로 떨어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김기태 감독 “이승엽 홈런 평평...내 앞에 주자가 없더라”

## 덕아웃 T 특특

▲하늘이 도왔어요 = 백용환은 지난 8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앞서 시상식 주인공이 됐다. 지난 8월 30일 삼성과의 퓨처스 리그에서 작성한 사이클링 히트에 관련한 시상식이었다. 백용환의 사이클링 히트는 퓨처스 리그 27번째, 파워와 스피드까지 겸비해야 가능한 어려운 기록이다. 백용환은 “3루타 때는 외야수가 수비하다가 넘어졌다. 그리고 4번째 타석에서는 평범한 안타였는데 공이 잔디를 맞고 갑자기 튀어 올라서 2루까지 갈 수 있었다. 운이 좋았다. 하늘이 도왔다”면서도 “타이거즈 포수 처음이다”고 기뻐했다.

▲주자가 없더라고 = KIA와 삼성의 시즌 최종전이 열린 10일 챔피언스필드에서는 삼성 이승엽의 은퇴 투어가 진행됐다. 이승엽의 광주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선수 시절 인연에 관한 질문을 받은 김기태 감독은 “이승엽이 (1999년) 홈런 54개를 쳤을 때는 같은 팀에서 직접 보기도 했다. 내가 주로 뒤에서 5번을 쳤는데 내 앞에 주자가 없더라. 앞에서 홈런 54개를 쳤으니”라고 말하며 웃었다. 김 감독은 1999년 삼성으로 이적하면서 이승엽과 삼성 클린업 트리오를 구성했었다.

▲꼭 오고 싶었어요 = 이승엽(삼성)이

라는 경북고 대선배를 보며 프로 선수의 꿈을 키운 투수 임기영에게는 특별한 복귀 전이었다. 후반기 부진으로 8월 9일 엔트리에서 말소됐었던 임기영은 9일 삼성과의 홈경기를 통해서 복귀전을 치렀다. 이날 임기영은 5이닝 3피안타 1볼넷 3탈삼진 1실점의 호투를 했다. 볼펜의 난조로 승리투수는 되지 못했지만 '이상 무'를 알린 경기. 또 '국민타자'와 마지막 승부를 했다는 점에서 임기영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었다.

임기영은 “경북고 시절부터 훈련도 열심히 하시고 후배들한테 잘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선배님과 상대하기 위해 삼성 경기에 앞서 복귀하고 싶었다. 같이 시합하는 것만으로 좋은데 승부까지 해서 영광이었다”며 “마지막 대결이라는 생각에 더 에너지를 쏟았다”고 언급했다. 임기

## 챔피언스필드투어 참가자 모집

KIA 타이거즈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투어' 제8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챔피언스 필드 투어는 경기장 및 선수단 시설 곳곳을 둘러본 뒤 경기까지 관람할 수 있는 상품으로, 오는 16일(토) kt전에 맞춰 진행된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그라운드(볼펜·타

영은 이날 이승엽과 두 차례 대결해 삼진과 좌익수 플레이를 만들었다.

▲18경기 남았으니까 = 버나디나가 타이거즈 역사상 첫 '100타점-100득점'의 주인공이 됐다. 버나디나는 10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1-3으로 뒤진 3회말 무사 1-3 루에서 좌익수 희생플레이를 치며 타점을 올렸다. 110득점으로 득점 1위에 올라 있는 버나디나는 이 타점으로 100타점까지 채우면서 타이거즈 역사에 첫 '100타점-100득점' 기록을 남겼다. 프로 통산 26번째, 전남 한국 무대 첫 끝내기 안타로 99타점을 기록했던 버나디나는 “아직 18경기가 남았으니까 100타점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팀 승리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고, 바로 다음 날 100타점을 만들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그아웃 및 라커룸(원정팀), 실내연습장을 견학한 뒤 선수단 훈련을 관전하게 된다. 선수-팬 미팅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 투어 참가자 모집은 11일 오전 11시부터 티켓링크(http://www.ticketlink.co.kr/sports/baseball/event/45)를 통해 선착순 50명에 한해 진행된다. 문의 마케팅팀 070-7686-8090.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는 제2의 고향...은퇴, 섭섭·홀가분”

## 삼성 이승엽, 챔스필드서 은퇴 투어

## “아버지 강진·어머니 해남 분”

## 1995년 생애 첫 홈런 떨어진

## 무등야구장 의자 선물 받아

1995년 5월 2일 6회 1사에서 '잠수함' 이강철의 손을 떠난 공이 무등야구장 허공을 가르며 우측 가운데 관중석으로 떨어졌다.

상대의 홈런에 고요해진 그라운드 위를 달린 이는 4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장한 '아기 사자' 이승엽이었다. 이날은 고졸 루키가 생애 첫 홈런을 기록한 날, 전설의 시작이었다. 이승엽은 광주에서의 홈런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14일에는 한·일 통산 600홈런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2017년 9월 10일 이승엽이 KIA팬들의 박수를 받으며 챔피언스필드 타석에 섰다. '아기 사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민 타자'로 우뚝 선 이승엽이 광주에서 뛰는 마지막 날이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하는 그는 KIA와의 시즌 최종전이 열린 이날 '은퇴 투어' 행사를 갖고 광주 야구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KIA 구단은 이승엽에게 기념품으로 그의 첫 홈런이 쫓힌 무등야구장 외야석 의자를 선물했다.

KIA가 고심한 특별한 선물이다. 자료 화면이 없어 정확한 홈런 낙하지점을 파악할 수 없었던 KIA는 당시 기록을 뒤져 비거리 110m 홈런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강철의 커브를 잡아당겨 우측 관중석 중단에 떨어졌다”는 이승엽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측을 해, 외야석 110m 지점의 의자를 선정해 기념품으로 제작했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광주에서 첫 홈런을 쳤었다. 공을 치고 조용해서 홈런인 줄 알았다(웃음). 광주에서 홈 블로킹 상황 때문에 벤치 클리어링이 나기도 했다. 어제는 (9회말 동점을 허용하는) 에러가 나오기도 했다. 미치겠네”라며 속스럽게 웃은 이승엽은 “해태 시절 선배들 정말 대단하고 다혈질이었다. 김정수 선배의 공에 맞은 적이 있는데, 내가 인사를 하고 나갔었다(웃음). 이대진 코치 구위가 좋아서 가장 상대하기가 힘들었다”고 광주의 추억을 떠올렸다.

이승엽은 “좋은 기억도 많다.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아버님이 강진분이시고 어머니도 해남분이시라서 제2의 고향이기도 하다. 음식은 정말 최고다”며 “앞서 부산, 수원 등에서 (은퇴 투어)를 하면서 느꼈는데 이제 유니폼을 입고 공식적으로 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섭섭하다. 한편으로는 홀가분하

# “2019 세계수영 붐 조성” 빛고을 전국마스터즈수영 성료

2017 빛고을 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가 지역민과 동호인들의 호평 속에 폐막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광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7 빛고을 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이하 마스터즈대회)'가 전국 수영 동호인 및 가족단위 등 시민들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붐 조성을 위한 프레대회로 열린 이번 대회는 초등부와 성인부로 나뉘어 치러졌다.

본 경기외에도 경기장 주변에 다이빙풀을 마련해 참가선수들이 다이빙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삼성 라이온즈 이승엽이 10일 오후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은퇴투어' 행사에서 KIA 타이거즈 구단이 준비한 선물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기도 하다”고 은퇴를 앞둔 심경을 밝혔다.

KIA 김기태 감독은 “후배 선수지만 함께 한 게 영광이었다”며 이승엽과의 시간을 회상했다.

1999년 삼성으로 이적해 이승엽과 한술밥을 먹은 김 감독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선수로 동메달을 합작했다. 일본 요미우리에서 육성생 코치와 선수로 인연을 이은 두 사람은 2008년 대표팀 타격코치와 선수로 베이징올림픽 9전 전승의 신화를 만들었다.

김기태 감독은 “후배 선수지만 함께 한 게 영광이었다. 어제 전광판에 홈런 개수를 보니 21개더라. 지금도 홈런을 21개나 친다. 테크닉이 워낙 좋은 선수라서 홈런 궤적도 예술이다. 한국야구에서 큰일을 했다. 준비 잘해서 좋은 지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는 이번 마스터즈 대회를 통해 경기 및 시설운영 등 대회 전반의 사항들을 점검하며 2년 후 있을 2019수영대회 대비 국제대회 운영 능력을 배양했다.

이외에도 전국에서 광주를 방문한 동호인들에게 숙박시설과 식당가를 안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며 광주를 홍보하는데 적극 노력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많은 동호인들이 참가해 광주가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도시라는 점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대회를 개최해 나가는 등 수영 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